

학교 통일 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

- '도덕·국민윤리' 교과와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

이 순 교

- I. 머리말
- II. 이론적 배경
- III. 학교 통일 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대북한 인식
: 자료 해석 및 논의
- IV. 요약 및 제언

I. 머리말

1. 연구의 목적

세계는 지금 세기적 변화의 길목에 서있다. 80년대 말부터 시작된 동구 공산권과 구소련 등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라 세계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고하고 또 새로운 경제 불럭화를 통하여 자국의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한반도 또한 변화의 태풍의 눈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한반도의 절반을 반세기 동안 지배해온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과 새로운 김정일 체제가 가져오는 변화의 폭은 크다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변화는 북한만의 전유물로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남한에 있어서도 30여년에 걸친 군사 정권이 막을 내리고, 문민 정부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현의 장을 열고 있다. 그 동안의 정권들은 경제적 발전과 반공 교육에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무관심하여 왔다. 수출 지향적 경제 도약을 통한 미래의 약속과 정권 유지 차원의 정치 교육을 통하여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인하여 북한의 현실적 모습이 각종 매체를 통하여 남한의 청소년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반향은 실로 크게 나타났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끊임없는 반공 교육을 통하여 사회화된 그들의 대북 인식에 대한 회의와 교육에 대한 비판까지 나타났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통일 교육의 한계가 '학교에서의 반공 교육도 일종의 세뇌 교육이었다'¹⁾는 말로써 드러난 것이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교육 방침은 정부 수립 이래 '반공'으로 일관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반공 기조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강도를 달리 하면서 전개되어 왔는데 6·25이전에는 '방공'으로, 6·25이후에는 '멸공'으로, 5·16이후부터는 '승공'으로 계속 이어왔다. 그러나 '80년대부터 반공 교육은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여 '80년대 후반에는 통일 논의의 부각과 더불어 반공과 통일 개념이 모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2) 또한 통일 교육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북한과 공산권에 지나친 경직성을 보인다는 비난과 함께 그간 통일 교육의 미흡함으로 통일 의지를 배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많았다.³⁾ 따라서 그간의

1) 「중앙일보」, 1994.7.15일자.

2) 임현모, 「통일정책의 변천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화-국민윤리과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국도덕국민윤리교육학회, 「도덕국민윤리과교육」(1990), p.259.

3) 정영수, 「통일대비 교육의 방향」 한국교육학회, 「교육학연구」(1993), pp.221-238 참조.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방화라는 새로운 시대에 부응코자 반공과 통일 개념을 조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제5차 교육 과정 개편이 이루어져 종래의 반공 교육은 통일(형제)·안보(적) 교육⁴⁾으로 불리게 된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에 통일·안보 교육의 시대를 거치면서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동시에 경계와 대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이중적인 의식 구조가 깔려있는 여건 하에서, 통일 교육의 과제가 명료하게 부각되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았다.⁵⁾ 이에 90년대에는 '화해 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일 교육'⁶⁾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교육은 학생들에게 남북 분단과 북한 현실 등 통일 문제와 관련된 사실들에 대한 공정한 판단과 이해를 위한 교육 내용이 미흡하고,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여러 문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내용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⁷⁾

또한 김일성을 '주석'이라고 부르는 사회 현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와 현실 속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⁸⁾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 4)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서울:한국교육개발원,1989),p.23.
- 5)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의 실천방안 : 도덕·윤리 교과지도 도움책 제 1집」 (1992), p.1.
- 6) 통일원,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통일원, 1993), pp.4-6.
- 7) 한국도덕국민윤리과교육학회, 앞의 책, p.76.
- 8) 본 연구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주석'의 명칭과 북한의 '국호'를 사용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표 1> 수업시간 중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의 칭호(주석)'의 사용 여부

구 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계
중학교(%)	16(21.1)	60(78.9)	76(70.4)
고등학교(%)	5(15.6)	27(84.4)	32(29.6)
합 계(%)	21(19.4)	87(80.6)	108(100)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교 교사의 경우는 78.9%(60명),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84.4%(27명)가 수업 중 '주석'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위촉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교과서의 내용과 일반 여론이 상이할 때마다 교사들은 난처해진다. 북한의 현실 등은 교사 자신도 설득력 있게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고 교과서의 자료도 각종 마스크에 비해 낙후된 것이기에 교사들은 자신도 없고 따라서 위촉될 수밖에 없다.⁹⁾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변화, 그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의식 변화에 따라 통일 교육의 방향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학교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능력, 즉 교사의 역할을 강조함에 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통일 교육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일선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의 역할을 정치사회화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제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운영 실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의 실제 수업에서의 북한과 통일 교육에 관련된 자료의 활용 정도, 그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 동안 이루어져 온 여론 조사를 통한 통일 교육에 관한 연구들은

또한

<표 2> 수업시간 중 북한 '국호(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사용 여부

구 분	사용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계
중학교(%)	32(42.1)	44(57.9)	76(70.4)
고등학교(%)	9(28.1)	23(71.9)	32(29.6)
합 계(%)	41(38.0)	67(62.0)	108(100)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북한의 '최고 통치자'의 칭호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호'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57.9%(44명)가, 고등학교의 경우는 71.9%(23명)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학교 '도덕'과 고등학교 '국민윤리' 현행 교과서에는 북한의 국호가 명시되어 있다.(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도덕」, 1994년판, p.221, ; 서울 대학교 국민윤리 1종 도서 연구개발 위원회, 「고등학교 국민윤리」, 1994년판, p.249, 252. 참조)

9) 방영준, "민족공동체의식과 통일국가 실천의지의 진작을 위한 중학교 도덕과 교육 실천 방안," 앞의 책, p.76.

모집단을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으로 삼았으며, 조사 내용도 통일과 안보에 관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¹⁰⁾ 이는 지금까지의 교육이 북한의 실정에 대한 접근을 금기해온 반공 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통일 교육을 학교 교육의 교과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교육의 주체인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운영 실태와 그들이 북한과 통일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가, 그리고 북한 실상에 대하여 얼마나 인지하고 있으며,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밝힘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교육 환경의 개선에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부는 '통일·안보 교육 지침서'에서 학생들 스스로가 통일 방안을 창출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줄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통일 교육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¹¹⁾ 동시에 북한 사회의 실상과 그 변화의 추세를 올바르게 파악한다는 것은 통일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¹²⁾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통일 교육을 다루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에게 통일 문제에 관한 규범적 차원과 사실적 차원을 교육 영역에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2. 연구의 내용

구소련을 시작으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함에 따라 일어난 세계 질

10) 어수영·이남영, "전국 대학생 통일 및 민주의식에 관한 연구," 1987.

나석주, "고등학교학생들의 북한관과 통일의식 조사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11) 교육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서」(교육부, 1989), p.16.

12) 통일원, 앞의 책, pp.46-48.

서의 재판 과정에서 분단 국가 중의 하나인 독일이 통일되고 또 뒤이어 예멘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통일을 이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전세계인의 관심 사항으로 등장되었다.

특히 최근 반세기 동안 북한을 통치해 온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북한은 권력의 승계 문제, 대외적 고립, 경제적 침체 등의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남북 관계를 긴장시킨 바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국내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북한 정세와 통일 정책에 대한 인식이 혼란을 빚고 있다. 이처럼 혼돈된 남북 관계의 현실 속에서 미래의 통일 한국을 이끌어갈 주역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 통일 교육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과와 바람직한 운영과 교과 담당 교사들의 교육의 주체로서의 역할은 그 비중이 더하다 할 것이다.

통일은 그 자체가 시대성을 가지므로 시간과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과제를 선정·보완할 필요가 있다.¹³⁾ 21세기를 맞고 있는 세기적 전환의 시기에 국내·외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환경에 유연히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통일 정책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

한 인간은 성장하면서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정과 학교에서 얻으며, 특히 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과 과정과 교육의 주체인 교사로부터 정치사회화된다. 청소년의 시기에 정치 현상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고 그 정치적 지식이 개념화되어 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에 이론적 배경을 두고, 급변하는 세기적 변화 속에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 교육의 교과 운영 실태와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를 분석하여 새로운

13)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중보판 (서울:서강대학교 출판부, 1986), p.605.

시대적 변화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키 위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북한에 대한 사실적 내용과 통일 문제를 교과 내용으로 담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교과의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교사가 갖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은 피교육자인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인하여 '도덕·국민윤리' 교과가 비전공 교사에 의해 가르쳐질 경우 올바른 북한 인식과 통일 교육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실제 수업에 있어서 북한에 관한 사실과 통일 문제를 다루면서 얼마만큼 북한 및 통일 문제에 관한 교육 자료를 이용하는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시대적 상황에 의해 급변하는 사회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교사의 교육 자료 수집과 이용은 실로 중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인식은 지난날 교육의 굴절에 의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의 정확한 사실 인식과 합당한 교육 자료의 선택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건이라 본다.

셋째,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인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학교는 그들을 정치사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통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 교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직접적인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역대 정권들은 철저한 반공 교육을 통해 북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철저히 막아왔으

며,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왜곡되어져 왔고, 이는 통일 교육의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교육과 통일 교육은 그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화해와 협력의 시대적 요망에 부응하기 위한 학생들의 올바른 북한 인식과 통일 의식을 갖추어 주기 위하여 교사들이 북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3. 용어의 정의

(1) 통일의 의미 ; 통일이란 국토 분할과 국권 분할에 의해 형성된 이질적인 체제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사회 문화적 요소까지도 분열되어 있는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로 되는 국토 통일, 국권 통일, 국민 통합과 더불어 가치·의식의 통합을 달성하여 새로운 통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단순한 영토나 정권의 통합만이 아닌 가치관과 생활 양식까지도 융화되어 정신적인 면의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¹⁴⁾

14) 민병천 교수는 분단과 통일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측 면	분 단	통 일
지 리 면	국 토 분 단	국 토 통 일
정 치 면	국 권 분 단	국 권 통 일
사 회 문 화 면	국 민 분 열	국 민 통 합
경 제 생 활 면	생 활 분 화	국 민 생 활 통 합
역 사 면	국사분성(國史分成)	국사통일(國史統一)

민병천, 「신통일론」(서울:고려원, 1992), pp.11-15. ; 이상우 교수는 '통일된 상태에서 단일 주권 국가, 국민 통합, 생활 공간의 통일, 법 질서와 군대 통합 등을 들고 있다.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서울:박영사, 1987), pp.98-101.

(2) 교육 ; 교육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주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¹⁵⁾ 또한 교육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방법에 의해 의식, 태도, 행위 등을 학습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⁶⁾

(3) 통일 교육 ; 통일 교육¹⁷⁾이란 통일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합리적 선택과 비판을 위한 분석 능력과 의사 결정 기능을 숙달시키며, 통일 국가를 성취하려는 당위성과 통일 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가치, 그리고 통일 문제와 관련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적극적인 의식을 형성하고자 하는 교육을 말한다.¹⁸⁾

4. 연구 방법 및 절차

(1) 조사 대상자 및 조사 실시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1994년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 교원 연수원에서 실시된 '도덕·국민윤리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가한 118명의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의 각 시·도별 그리고 학교별 분포는 <표3>, <표

15) 이중, 「교육과 사회」 (서울:배영사, 1977), pp.25-27.

16) 박용현, "정치교육의 성격과 과제," 한국국민윤리학회편, 「정치교육」 (서울:형설출판사, 1984), pp.18-19.

17) 통일 교육은 그 동안 여러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해방이후 역대 정권이 시행한 북한 및 공산주의와 관련된 교육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어 왔다. 방공 교육, 반공 교육, 멸공 교육, 승공 교육, 국방 안보 교육, 이태올로기 교육, 이념 교육, 안보 교육 등이 그것이다. 통일원, 「통일교육지도자료」 (통일원, 1990), p.35. 참조.

18)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원, 「통일조국의 헌법·교육제도·통일교육의 방향」, '92 연구논문, pp.369-400.

3-1>과 같다.

설문지의 구성은 교사들의 교육 환경, 교과 운영 실태, 북한 자료 이용 실태, 북한에 대한 인식, 북한에 관한 인지도 등 다섯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항은 이진식의 논문¹⁹⁾과, 민족통일연구원²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²¹⁾ 등의 조사 문헌을 참고하였고, 북한에 관한 인지도에 대한 문항은 최명(책임편집)교수 등의 문헌²²⁾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작성하였다. 교과 운영 실태와 북한 자료 이용 실태에 대한 문항은 연구자가 현장 교육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교과 운영과 수업중 문제점으로 인식된 것을 작성한 것이다.

또한 하위 분야별로 조사 항목을 정한 다음 각 조사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문항과 척도를 구성하였다. 설문의 형태는 선다식, 평형식, 개방식²³⁾을 함께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의 내용²⁴⁾은 다음과 같다.

-
- 19) 이진식, "사회과 교사와 학생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의식 분석," 「더불어사는 삶을 위한 사회교육」(서울:도서출판 푸른나무, 1991), pp.108-124.
 - 20)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1993. 7.
 - 2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통일교육분과, 「'93 여름 통일교육 연수」 자료 1993.7 ; 「통일교육」, 제7호, 1993.7 ; 「참교육 실천으로 나가는 한걸음」, 제8호, 1994.6.
 - 22) 최명(책임편집), 「북한개론」(서울:울유문화사, 1991) ; 전인영(책임편집), 「북한의 정치」(서울:울유문화사, 1991) ; 이태욱(책임편집), 「북한의 경제」(서울:울유문화사, 1991) ; 강정구(책임편집), 「북한의 사회」(서울:울유문화사, 1991) ; 권영민(책임편집), 「북한의 문학」(서울:울유문화사, 1991) ; 김문환(책임편집), 「북한의 예술」(서울:울유문화사, 1991) ; 김정찬(책임편집), 「북한의 교육」(서울:울유문화사, 1991) ; 신정현(책임편집), 「북한의 통일정책」(서울:울유문화사, 1991) ; 최최호, 「북한영화예술」(서울:신원문화사, 1989)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서울:법문사, 1993) ; 배기찬, 「신 북한 지리지」(서울:도서출판 다나, 1994)
 - 23) 김광웅, 「사회과학연구 방법론」(서울:박영사, 1989), pp.232-233.
 - 24) 이순교, 「학교 통일 교육 실태 및 교사의 대북한 인식 분석-도덕·국민윤리 교과와 담당 교사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4, 부록 참조.

첫째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전공을 묻는 질문과 응답자가 현재 근무하는 학교의 교과 과정에서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상치(相馳)²⁵⁾ 여부를 묻는 질문

둘째,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관한 자료 이용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관한 정보의 추구 노력의 정도를 묻는 질문과 실제 수업에서의 북한 자료 활용 여부를 묻는 질문

세째,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응답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 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

네째,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해 응답 교사의 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및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

<표3> 응답자의 시·도별 분포

구분	인천	대전	경기	강원	충북	무응답	계
중학교	15	7	32	8	14	0	76
(%)	(19.7)	(9.2)	(42.1)	(10.5)	(18.4)	(0.0)	(64.4)
고등학교	5	3	11	4	9	0	32
(%)	(15.6)	(9.4)	(34.4)	(12.5)	(28.1)	(0.0)	(27.1)
합계	20	10	43	12	23	10	118
(%)	(16.9)	(8.5)	(36.4)	(10.2)	(19.5)	(8.5)	(100)

25) '교과 상치'란 교원의 수급상 단위 학교의 교사 시간(시수) 배당에 있어 어떤 교과를 담당할 수 있는 전공 교사가 부족할 때 그 교과와 유사 관련 교과의 교사가 시수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학제적 관련 교과의 교사가 없거나 비관련 교과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에는 교과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다.

<표3-1> 응답자 재직 학교의 '도덕·국민윤리' 과목 담당 교사수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사수	294(75.2)	97(24.8)	391

(2)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를 위한 118부의 설문 답지 중에서 무응답이 많은 10부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설문 답지는 총 108부(91.5%)이다. 이들 설문 답지는 개인용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일괄 전산 처리하였다. 결과 처리를 위한 분석에 사용한 통계치는 빈도와 백분비(%)를 사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 경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방법은 문항별로 분석하여 질문의 성격상 하나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것들을 '도덕·국민윤리' 교과 운영 실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교사의 복한에 관한 자료 이용 실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복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복한에 대한 인지도 등의 유형별로 묶어서 분석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학교별(중학교, 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상호간의 차이점과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첫째, 연구의 대상이 '1994년도 도덕·국민윤리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가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함으로써 표본의 수가 108명에 불과하고 지역적 분포도 인천, 대전, 경기, 충북, 강원에 치중되어 본 연구가 전국적인 모든 교사의 특성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상기 교육 연수에 참가하는 교사의 교육 경력이 3-5년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인해 연령에 따른 상관성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다.

둘째, 연구의 목적을 질문지의 문항만으로 완전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한 국가 체제에 관한 인식도를 몇 개의 단순화된 질문을 통하여 측정해 낸다는 것은 한계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설문문의 내용이 너무 개괄적인 면에 머물러 좀더 상세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있다.

셋째, 본 연구를 위한 설문 문항이 연구자의 학문적 미숙함으로 인하여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설문 문항을 통하여 대학에서의 국민윤리과 전공 교사와 비전공 교사의 상관성, 남교사와 여교사의 차이 등을 밝히지 못한 점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치 사회화의 개념

우리 나라에서 한국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다.²⁶⁾ 당시의 연구는 미국 학자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시킨 이론적 틀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²⁷⁾

정치사회화의 개념은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었다. 정치사회화에 대한 정의는 개인 수준에서의 정의와 정치 체계 수준에서의

26) 미국에서의 정치사회화의 연구가 등장한 것은 1959년 H.H. Hyman의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라는 저작으로 이 분야 연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김재영(공저),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서울:형설출판사, 1990), p.212.

27)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서울:법문사, 1982), p.15.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규택,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3집」, 1969.; 정세구,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발달·정치신뢰와 정치효능”, 「한국교육」, Vol.1, No.2, 1974.; 유종해,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곡재총」, 제4집, 1973.

정의로 구분²⁸⁾하기도 하지만 다음과 같이 세가지 측면으로 구분²⁹⁾하기도 한다. 첫째로 어떤 결과나 적용에 비중을 두는 정의, 둘째로 과정이나 동화에 보다 역점을 두는 정의 그리고 정치사회화를 정치 체제와 연결시켜 체제 유지나 발전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정의이다. 먼저 어떤 결과나 적용에 비중을 두는 정의는 주어진 관습이나 요구에 순응하거나 적용하는 측면을 강조하여 다분히 어떤 체제의 우위성과 함께 정치사회화의 대상으로서 청소년들의 수동적 역할과 적용 면에 비중을 두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학자들의 정의가 있다.

Sigel : 정치사회화란 하나의 현존하는 정치 체제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정치적 규범이나 행위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전승되는 학습 과정³⁰⁾

Wirt, et al. : 개인이 정치에 관하여 받아들이고 있는 지식과 가치 신념이 "성인-청소년"의 관계로 세대간에 전승되는 것³¹⁾

두번째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과정이나 동화에 보다 역점을 두는 정의로서, 정치사회화를 사람들이 정치 정향을 습득하는 발전적 과정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로는 다음과 같은 학자가 있다.

Hyman : 사회화란 여러 가지 사회화 매체를 통하여 개인이 사회적 지위에 알맞은 사회 유형을 익히는 과정³²⁾

28) 이종렬, "정치사회화 연구의 문제점과 정치교육", 「사회와 교육」, 제8편, 1984, p.51 ; 서강식,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발달에 미치는 사회정치화 동인의 영향 : 접촉·의사소통·수용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8, pp.7-9. 참조.

29) 김재영(공저), 앞의 책, pp.213-215.

30) R.S.Sigel, 「Learning of Politics」(New York : Random House, 1959), 김재영(공저), 앞의 책, p.214. 재인용.

31) Frederk M.Wirt, R.D.Morney, L.F.Brakeman, "Political Socialization and High school Civics" in 「Introductory Problems in Political Research」(Englewood : Prentice-Hall, 1970), pp.32-38, 진덕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상황적 제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논총」, 제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1, pp.431-460. 재인용.

김경용: 인간 행동의 골격을 이루는 여러 가지 규범의 내면화³³⁾

이택휘: 정치적 대상에 대한 감정, 태도, 행위 등을 학습하는 과정³⁴⁾
셋째로 정치사회화를 정치 체제와 연관시켜 체제 유지나 발전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학자들이 있다.

Prewitt는 정치사회화에 헤게모니 이론을 도입하여 정치사회화를 지배 집단이 통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이 의도하는 사회적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도록 통제를 가하는 것³⁵⁾이라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사회화의 개념을 한 개인이 한 사회의 정치 세계에 대한 지식, 가치, 태도, 감정, 평가 등의 정치적 정향을 다양한 사회화 동인에 의하여 습득함으로써 정치체제에 적용하는 과정이라 정의한다.³⁶⁾

2. 정치사회화 매체로서 교사의 역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속하게 된다. 한 개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동은 그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내지는 문화적 환경과 그의 경험이나 성격과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³⁷⁾ 이러한 환경을 이루는 주요 요인으로 정치사회화 매체를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가족, 학교, 교우, 집단, 대중 매체 등 다양하다. 인간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 정치 지식, 가치, 태도, 감정 등을 습득하게 된다. 정치사회화 대상으로서 청소년기는 성인기보

32) H.H.Hyman, 「Political Socialization」 (Glencoe III: The Free Press, 1959), p.22, 김재영, 앞의 책, p.214, 재인용.

33) 김경용, 「정치교육론」 (서울: 유풍출판사, 1982), p.34.

34) 이택휘, 「정치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치와 복지국가」 (서울: 삼영사, 1981) p.344.

35) K.Prewitt,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tical Education, 1」 (1977-1978), pp.111-126, 김재영(공저), 앞의 책, p.214에서 재인용.

36) 서강식, 앞의 논문, p.9.

37) 김재영(공저), 앞의 책, p.238.

다 더 중요하다. 따라서 정치사회화의 연구는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강조하여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중요시 한다. 청소년의 시기에 정치 현상에 대한 지식이 획득되고 그 정치적 지식이 개념화되는데, 이러한 정치적 지식과 판단이 청소년기에 증가하는 것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사회 현상에 대한 인지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이다.³⁸⁾

인간은 유년 시절은 가정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게 되며 점차 성장해 나감에 따라 학교, 교우 집단, 대중 매체 등의 다양한 정치사회화 매체와 접촉하면서 영향을 받으며 정치 태도를 형성해 나간다.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때 가장 중요한 사회화 매체는 가정과 학교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정치사회화 매체 중에서 청소년기에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동인의 하나인 학교를 중심으로 다루기로 한다.

개인은 성장할수록 가정 환경을 벗어나 정치사회화되는 다양한 다른 집단이나 체도를 만나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경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질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조직적 시도가 행해지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학교라는 대행자가 광범하게 가능하다. 이때 개인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태도나 행위 유형을 지지 받거나 또는 새로운 정치적 정향을 형성시킨다. 아동기 초기에는 정치사회화에 가정의 영향이 크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정의 영향이 점차 줄어들면서 학교의 영향이 증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³⁹⁾ 즉 이곳에서 정치적 재사회화가 이루어진다.⁴⁰⁾ 학교 교육은 대부분의 학생들의 정치적 사상과 신념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정치 사상과 신념을 주입시키는 대행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교와 정치사회화의 관계는 여러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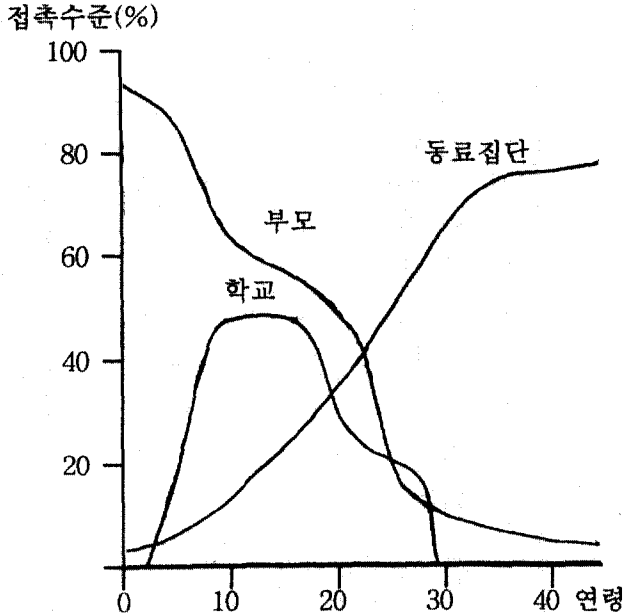
38) 이순형, 「정치사회화 : 사회인지와 현실참여」(서울:서울대학교출판부, 1994), p.27.

39) 김경웅, 앞의 책, p.34.

40) 김재영, 「정치사회화론」(서울:대왕사, 1983), pp.136-137.

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과 교사이다.

<그림-1> 정치사회화 동인과 접촉 수준⁴¹⁾



교과 과정은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교과 과정은 특정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여서 정치적 태도나 행동을 가르치는 의도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학교에서의 공민 교육은 고대 이래로 모든 정치 체계의 현저한 특징이었고 공식 교육의 과정과 학교는 정치 체제에 의해 정치 문제로서 조종받는다. 정치 지도자는 사회를 대표하여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

41) P.A.Beck, "The Role of Agents in Political Socialization", in S.A.Renshon,ed., 「Handbook of Politicalization」 (NewYork : The Fress Press, 1977), p.177. 서강식, 앞의 논문, p.2에서 재인용.

라서 정치 지도자가 자신을 위하여 정치사회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교육의 내용을 결정하고 그것을 가르칠 교사를 선택하는 것이다.⁴²⁾

정치사회화 과정을 조력하는 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은 근대 사회에 보다 크게 부각된 사회적 기능이기도 하다. 즉 교사는 그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이 사회의 생활 방식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키는 기능을 발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⁴³⁾. 학교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을 담당하여 학생들이 지닌 잠재적 능력을 외부로 발휘시켜 아직 불완전하고 미발달된, 그러면서도 무한히 변화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의 상태에 외적인 힘을 가함으로 보다 완전하고 발달된 상태로의 변형을 위한 의도적 작용을 하는 교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 교사인 것이다. 교사는 사회의 대변자로서 학급을 운영하며 교과 내용을 직접 가르치고, 또한 그들의 행위 양식은 태도 형성기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사의 태도는 그가 속해 있는 각기 다른 사회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다.

Ⅲ. 학교 통일 교육의 실태와 교사의 대북한 인식 : 자료 해석 및 논의

1. '도덕·국민윤리' 교과 운영 실태

통일 교육이 적극적인 통일 대비 교육으로 전환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화 시대에 알맞게 종래의 반공 교육을 개편하자는 요구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⁴⁴⁾ 그러나 우리는 분단되면서부터 분단과 통일

42) 김재영(공저), 앞의 책, p.244.

43) 정우현, 「교사론」(서울:배영사, 1993), p.303.

44) 교육부, 「국·중·고교 교과서의 통일·안보교육」, 1990.7., p.3.

에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교육부에서도 통일 교육의 변천 과정을 “반공 교육 -> 통일·안보 교육 -> 통일 대비 교육”으로 설명하고 있다.⁴⁵⁾ 이러한 통일 교육의 변화는 중학교의 ‘도덕’ 교과와 고등학교의 ‘국민윤리’⁴⁶⁾ 교과의 교육 과정⁴⁷⁾에 잘 나타나 있다.⁴⁸⁾

반공 교육기는 미군정기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1982-1987)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는 통일 교육이라기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반공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다.⁴⁹⁾

미군정기에는 군정청 학무국이 ‘일반 명령 제4호’에 따라 ‘신조선의 조선인을 위한 교육 방침’을 시달했는데, 이것을 근거로 일제 시대의 ‘수신과’를 폐지하고 ‘공민과’를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는 반공에 관한 교육 내용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⁵⁰⁾

45) 위의 책, p.3.

46) 제6차 교육 과정부터(1996년)는 ‘국민윤리’의 교과 명칭을 ‘윤리’로 개칭하였다. 교육부, 고등학교 교육과정(Ⅰ), 제6차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1992-19호), 1992, pp. 2-26 참조

47)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교육을 역사적으로 기술할 때 시대를 단위로 파악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문교사에서는 ‘定礎期(1945-49)’, ‘再建期(1950-59)’, ‘發展期(1970-현재)’로 구분되어 있다(중앙대학교부설한국교육문제연구소, 교육사, 1974). 1980년대부터는 1954년에 공포한 교육 과정을 제1차, 1963년 교육 과정을 제2차, 1973년 교육 과정을 제3차, 1981년 교육 과정을 제4차, 1989년부터 실시되는 교육 과정을 제5차 교육 과정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였다(유봉호, 「현대교육과정」, 개정증보판, 서울:교육연구소, 1993), pp.203-341). 중학교는 1995년부터, 고등학교는 1996년부터 제6차 교육 과정이 시작된다.

48) 통일 교육은 범교과적으로 도덕과, 국민윤리과, 사회과(국사, 사회), 교련과, 국어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도덕과, 국민윤리과에서의 통일 교육은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 교육 과정에서도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중심으로 통일에 관한 기초 정보와 지식, 합리적 사고와 태도를 지도하며 그밖의 관련 교과인 사회, 국어, 교련 등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루며 행사나 특별 활동 등 계기 교육의 전과정에서도 반영토록 했다.

49) 강광식, “남북대화시대의 반공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과 교육의 과제와 전망」 연구자료 RM86-5, 1986, p.134.

50) 이재봉, “한국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교수요목기(1946-1954)⁵¹⁾에는 남한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수복지구인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의 통일 정책을 추구하면서 반공을 하였지만, 6.25를 치르면서 체험적인 반공 교육이 시작되었다. 특히 북한 공산 집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반공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반공 교육이 윤리 교육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에 전쟁으로 인하여 형성된 도덕성의 타락과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의 도덕 교육을 연장하고, 도덕 교육 시간을 신설하였다.⁵²⁾

제1차 교육과정기(1954-1963)에는 반공 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반공 교육과 도덕 교육이 이원화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인정 교과서이던 것을 1957년에 국정 교과서로 바꾸었고, '도의 교육 요항'에 반공·항일의 항목이 구체화되었다.⁵³⁾

제2차 교육과정기(1963-1974)에는 초등에서는 반공·도덕 생활이 교육 과정으로 신설되어, 교육 과정의 영역에 첨가되었다. 또한 중학교의 도덕 이수 단위도 4단위로 증가되었고, 고등학교 사회과의 한 과목인 '도덕'은 '국민윤리'라는 이름으로 개칭되었다. 또한 1969년 문교부령 제251호에 의거하여 사회과 중의 한 과목인 '국민윤리'는 '반공 및 국민윤리'로 개명되고 이수 단위가 4단위에서 6단위로 확대되었다.⁵⁴⁾

제3차 교육과정기(1974-1981)에는 도덕 교육과 반공·도덕 생활을 분류하여 실시하던 것을 '도덕과'로 개칭하여 독립된 교과를 설치하고,

1991. 8., p.56.

- 51) '교수요목시대'란 미군정때 교수요목 제정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수요목을 제정 실시하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다. 유봉호, 앞의 책, p.204 참조.
- 52)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문교부, 1989), pp.103-104
- 53) 교육과정·교과서 연구회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교과서연구총서 5, 1990, pp.42-43 ; 위의 책, pp.104-106 참조
- 54) 이시기의 반공교육의 일반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위의 책, p.44.

고등학교에서는 ‘국민윤리’ 교과를 필수적으로 이수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반공 교육이 도덕과 국민윤리 교과와 생활 영역으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⁵⁵⁾

제4차 교육과정기(1982-1987)에는 국민 정신 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 하에 반공 생활 영역이 확대되었고,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 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⁵⁶⁾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실시되었던 통일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반공 교육이 중심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5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는 반공 교육을 통일·안보 교육으로 개칭하고, 반공 생활 영역의 내용을 반공 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도록 바뀌었다. 특히 고등학교 ‘국민윤리’ 교과서에서는 북한은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안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합쳐 살아야 할 형제(통일)라는 것을 강조하였다.⁵⁷⁾ 즉 북한은 우리에게 위협적인 실체인 동시에 함께 살 길을 모색해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이라는 것이다.⁵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교육부는 제6차 교육 과정 개정에서 통일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제6차 교육 과정을 개정하면서 통일·안보 교육이 아니라 통일 교육으로 지칭했다.⁵⁹⁾ 그 명칭이 통일 교육으로 바뀌어지면서 통일·안보 교육의

55) 문교부, 위의 책, pp.106-107. 이 시기에 교육 과정에 추가된 반공 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렬함으로써 승공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것이다.

56) 위의 책, pp.47-48.

57) 교육부, 「통일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1993, pp.10-11.

58) 윤건영, “남북한 교류 협력시대 통일교육의 방향,” 통일원, 「통일조국의 헌법·교육제도·통일교육 방향」, '92연구논문, p.443 ; 위의 책, p.11.

59) 교육부에서 작성한 “중요 교육분야 통일교육의 교육과정 각론 반영지침,” 윤건

중심을 통일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어 안보 교육은 통일 교육의 하나의 영역으로 된다는 것이다.⁶⁰⁾

살펴본 바와 같은 교육 과정에 따른 통일 교육의 빈번한 변화는 교과 내용의 변화⁶¹⁾를 가져왔고 이를 직접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국민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교사의 질적 향상과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교사 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교사 자격증의 표시 과목 관련 학과를 대폭 축소 조정하였다.⁶²⁾ 하지만 아직까지 일선 학교 교육 현장에서의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는 많은 수가 전문 교과 전공자가 아닌 그의 철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학 등의 전공자가 교직 과목을 이수하여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적 구성을 하고 있다.⁶³⁾ 따라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는 것은 유의하다 하겠다.

(1)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전공 분포 분석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중 '교사 자격증'의 표시 과목을 '국민윤리'로 부여 받은 교사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4>와 같이 298명이었다. 이들 중 교사 자격증 표시 과목 관련 학과를 조사한 결과 국민윤리(국민윤리교육과, 국민윤리과)를 전공한 교사는 중학교의 경우 65.2% (148명)를, 고등학교의 경우 35.2%(25명)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응답자가 근무하는 학교의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교사 자격

영, 앞의 책, p.444에서 재인용.

60) 신상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1992년 3월호, p.42.

61) 중·고등학교의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 영역과 관련 있는 영역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4> 응답자 재직 학교의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전공 분야 분포

구분	국민윤리	교육학	철학	기타	계
중학교	148	60	5	14	227
(%)	(65.2)	(26.4)	(2.2)	(6.2)	(76.2)
고등학교	25	28	5	13	71
(%)	(35.2)	(39.4)	(7.0)	(18.3)	(23.8)
합계	173	88	10	27	298
(%)	(58.0)	(29.5)	(3.4)	(9.1)	(100)

전공자의 경우 중학교가 26.4%(60명), 고등학교가 39.4%(28명)를 차지하고 있고, 전공이 철학(철학과, 인도철학과 등)인 경우는 중학교가 6.2%(5명), 고등학교가 7.0%(5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기타로서 종교학(종교교육과, 종교학과, 기독교교육과, 기독교학과, 신학과, 불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선학과, 원불교학과 등)을 전공하거나 심리학(교육심리학과, 심리학과 등) 등을 전공한 교사의 경우가 중학교의 경우 6.2%(14명), 고등학교의 경우 18.3%(13명)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 자격증의 표시 과목과 관련학과가 다른 교사의 경우가 중학교의 경우 34.2%(79명)을 차지하고 있고, 고등학교의 경우 64.8%(46명)을 차지하고 있다.

국민윤리를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통일 교육을 담당할 경우 필요한 기본 이수 교과(64)를 이수하지 않음으로써 통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비관련 학과를 전공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64.8%)이 관련 학과를 전공한 교사(35.2%)보다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 통

64) 중등학교교사(특수학교교사 양호교사 및 유치원교사 포함) 표시과목의 관련학과 및 기본이수 영역 참조, 교원자격검정운영지침, 앞의 책, pp.1005-1007 참조.

일 교육을 통한 고등학생들의 올바른 통일 의식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⁶⁵⁾ 고등학교에 비전공 교사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에 관련학과⁶⁶⁾가 생겨난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 교사의 남녀비에 있어서 여교사의 비율이 증가하는데⁶⁷⁾ 반하여 여교사의 경우(국민윤리를 전공한 여교사뿐만 아니라 여교사의 전반적인 인식) 중학교보다 학생을 지도하기가 힘든 고등학교를 기피하는 것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재교육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학력 조사는 <표4-1>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가 8.8%(20명), 고등학교의 경우 16.8%(12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 중에는 교사 임용 전에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그 경우를

65) 정세구 교수는 “현재 중·고등학교에서 민족·통일교육 등을 전담하는 ‘도덕과’, ‘윤리과’의 교과 담당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본 이수 과목으로 ‘한국 윤리 사상’과 ‘북한학(통일교육)’ 등이 고시되고 있는데도 동 과목 등을 서양철학에 속하는 ‘인식론’과 ‘논리학’ 등으로 대치하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 현행 민족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 정세구, “세계화 시대의 민족교육,” 「교육월보」 1994. 10월호, p.31.

66) 사범대학에서 국민윤리 교과를 전공한 교사가 배출된 것은 1985년부터이다.

67) 경기도내 연령별 여교사의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연령별 여교원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계	여
중학교	4,675	3,657	7,251	5,325	5,099	2,494	2,292	1,543	789	120	20,106	7,965
	78.2(%)		73.4(%)		48.9(%)		67.3(%)		15.2(%)		39.6(%)	
고등학교	1,317	655	3,028	677	738	125	355	19	87	5	5,565	1,481
	49.7(%)		22.3(%)		16.9(%)		5.4(%)		5.7(%)		26.6(%)	
합계	5,992	4,312	10,179	6,002	5,837	2,619	2,647	1,562	876	125	25,671	9,446
	71.9(%)		58.9(%)		44.9(%)		59.0(%)		14.3(%)		36.8(%)	

(경기도 교육청, 「경기 교육 통계 연보」, 1993년판 참조.)

포함하더라도 대학원졸업자의 비율은 낮다 하겠다⁶⁸⁾. 따라서 교사들의 재교육의 기회가 상당히 저조함을 알 수 있다.

<표4-1> 응답자가 재직하는 학교의 '국민윤리 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의 학력 분포

구 분	대학졸(%)	대학원(%)	계(%)
중학교	207(91.2)	20(8.8)	227(76.2)
고등학교	59(83.1)	12(16.9)	71(23.8)
합 계	266(89.3)	32(10.7)	298(100)

(2) '도덕·국민윤리' 교과에의 상치 실태 분석

<표5> 응답자 재직 학교의 '도덕·국민윤리' 과목의 상치 여부

구 분	상치한다(%)	상치하지 않는다(%)	계(%)
중학교	30 (39.5)	46 (60.5)	76(70.4)
고등학교	14 (43.8)	18 (56.2)	32(29.6)
합계	44 (40.7)	64 (59.3)	108(100)

설문지에 응답한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도덕·국민윤리' 교과에 대하여 교과 상치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표5>와 같다. 중학교의 경우 39.5%(30개교)가 고등학교의 경우

68) 경기도내 중등 교사(주임교사 포함)들의 학력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대졸 이하(%)	대학원(%)	계(%)
중학교	17,546(96.8)	577(3.2)	18,123(77.6)
고등학교	4,699(90.0)	521(10.0)	5,220(22.4)
합계	22,245(95.3)	1,098(4.7)	23,343(100)

(경기도 교육청, 「경기 교육 통계 연보」, 1993년판 참조.)

43.8%(14개교)가 교과 상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치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는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에 대한 비율을 통해 보면 <표5-1>과 같다. 중학교

<표5-1> '도덕·국민윤리' 과목을 상치하는 경우 상치 교사의 수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사수	67(22.8)	26(8.8)	93(31.6)

<'도덕·국민윤리'과목 담당 교사의 수(391)에 대한 비율>

의 경우 22.8%(67명), 고등학교의 경우 8.8%(26명)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고등학교 '도덕·국민윤리' 교과목의 교육은 31.6%에 이르는 타 교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상치하고 있는 교사의 전공 교과를 살펴보면 <표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학교의 경우 인문 과학 분야(국어, 외국어 등) 1.5%(1명), 사회 과학 분야(사회, 국사, 지리 등)가 97.0%(65명), 자연 과학 분야(과학, 생물, 물상, 화학 등) 1.5%(1명)으로 나타났고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과학 분야가 3.8%(1명), 사회과학 분야가 65.4%(17명), 예체능 분야가 30.8%(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과학 분야와 예체능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34.6%에 달하고 있다.

가장 바람직한 교과 운영은 동일 교과 전공 교사가 교과를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수급상의 문제에 의하여 그것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학제적 연결이 되는 교과 교사가 담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교과 운영 실태를 보면 '도덕·국민윤리' 교과를 상치하는 경우의 학교가 59%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의 수적 비율을 보면 31.6%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동교과 운영상의 심각한 문제는 상치 교사의 경우 동교과와 전혀 학제적 연결이 없는 자연 과학 계열과 예체

<표5-2> '도덕·국민윤리' 과목을 상치하는 교사의 전공 분야 분포

구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체능분야	계
중학교	1	65	1	0	67
(%)	(1.5)	(97.0)	(1.5)	(0.0)	(72.0)
고등학교	1	17	0	8	26
(%)	(3.8)	(65.4)	(0.0)	(30.8)	(28.0)
합계	2	82	1	8	93
(%)	(2.2)	(88.2)	(1.1)	(8.6)	(100)

능 분야의 교사가 담당함으로써 통일 교육의 내실화, 효율성 제고, 교육 목표의 달성에 부적합하다는 점이다.

2.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복한에 관한 자료 이용 실태

통일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됨에 따라 통일 교육의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최근의 변화하는 상황을 보다 사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 교육의 방법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반공 교육 중심에서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통일 교육으로 전환된 상황에서 교육 내용은 물론 교육 내용의 변화에 따라 교육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즉 이제 통일 교육은 사실적인 교육 내용을 다양한 수업 방법을 동원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의 변화하는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에 따라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 및 통일 문제를 객관적이며, 합당하게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려면 그 학습 내용이 통일 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실제적이고도 객관적인 학습 자료를 통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하지만 교과서의

경우 교육 내용이 통일 환경의 변화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진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⁶⁹⁾.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변화하는 현실 상황을 생동감 있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스스로가 능동적인 자료 수집 및 구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북한에 관한 자료 이용 실태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하다 하겠다.

(1)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 정보 추구 노력 평가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북한의 신문이자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하여 그 사회를 이해하는 것도 그 중 하나이다.

북한에 있어서 신문의 역할은 일반적 개념으로 "정기간행물의 한 종류로서 문자 그대로 어떤 새롭고 의의 있는 사실과 사건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⁷⁰⁾ 또는 "지면을 통하여 실지 있는, 새로운 사실, 사건을 광범한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연속적으로 알려주는 대중보도수단"⁷¹⁾으로 규정하고 있어 남한의 규정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러나 북한은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신문의 본질을 "당적 신문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계급적 성격을 띠며 정치의 중요한 수단으로, 사회혁명과 건설, 대중교양과 대중동원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 복무하는 데 있다"⁷²⁾고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로동신문'을 접하는 것이 북한 사회를 이

69) 한만길, "고등학교 교육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 모색," 통일원, 「통일조국의 헌법·토지·교육제도·통일교육 방향」 '92 연구논문, pp. 536-537.

70) 배순재·라두림, 「신문리론」 (평양:김일성종합대학 출판부, 1967), 김영주, "북한 신문학 연구의 어제와 오늘-「신문리론」, 「신문학」, 「신문학개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영주·이범수 역음, 「북한언론자료집 김정일시대의 언론 이론과 정책」 (서울:한울아카데미, 1994), p.23.

71) 김원태,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일진사), 김영주, 위의 책, p.23에서 재인용.

해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 하겠다.

질문지에 응답한 교사의 경우 '로동신문'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은 <표6>과 같다. 중학교의 경우 89.5%(68명)가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하고, 단지 10.5%(8명)만이 몇 번 본 것

<표6> '로동신문'을 읽어본 경험

구 분	자주 본다(%)	몇 번 보았다(%)	본 적이 없다(%)
중학교	0(0.0)	8(10.5)	68(89.5)
고등학교	0(0.0)	8(25)	24(75)
합계	0(0.0)	16(14.8)	92(85.2)

으로 응답하였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75.0%(24명)가 '본 적이 없다'에, 25%(8명)가 '몇 번 보았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교사의 경우 85.2%(92명)가 '로동신문'을 전혀 접해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북한에 관한 자료를 접해본 것을 알아보는 질문에 대하여는 <표6-1>에 나난 바와 같이 중학교 교사의 경우 북한 영화 34.3%(26명), 북한 학술지 6.6%(5명), 북한 소설 13.2%(10명), 북한 잡지 13.2%(10명), 북한 방송(TV, 라디오) 25%(19명), 귀순자(강연 등) 48.9%(37명)로 나타났으며, '해당 없음'에 응답하여 전혀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도 19.7%(12명)에 이르렀다. 따라서 가장 경험을 많이 한 것은 귀순자의 강연, 북한 영화, 북한 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항목 중 1개 항목만을 경험한 교사가 48.7%(37명), 2개 항목이상이 31.6%(24명)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북한 영화 15.6%(5명), 북한 학술지 15.6%(5명), 북한 소설 21.9%(7명), 북한 잡지 12.7%(4명), 북한 방송 56.3%(18명), 귀순자(강연 등) 81.3%(26명)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없

음'에 응답한 교사의 경우는 9.4(3명)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은 귀순자의 강연, 북한 방송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6-1> 경험해본 북한 자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북한 영화	26(34.3)	5(15.6)	31(28.7)
북한 학술지	5(6.6)	5(15.6)	10(9.3)
북한 소설	10(13.2)	7(21.9)	17(15.7)
북한 잡지	10(13.2)	4(12.7)	14(13.0)
북한 방송(TV,라디오)	19(25)	18(56.3)	37(34.3)
귀순자(강연 등)	37(48.9)	26(81.3)	63(58.3)
해당 없음	12(19.7)	3(9.4)	15(13.9)
1개 항목 선택	37(48.7)	7(21.9)	44(40.7)
2개 항목 이상	24(31.6)	22(68.8)	46(42.6)

1개 항목만을 경험한 교사가 21.9%(7명), 2개 항목이상이 68.8%(22명)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이 가장 많은 경험을 한 것으로 귀순자의 강연과 북한 방송이 나타난 것은 교사 연수를 통해서 귀순자의 강연을 접하거나 T·V를 통해 방영된 북한 방송의 내용('남북의 창' 등)을 청취한 경험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그러나 '해당없음'으로 응답하여 북한에 대한 자료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교사의 비율이 13.9%(15명)에 상당하여 북한에 대한 사실 교육과 통일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2) 실제 수업에서의 북한 자료 활용 실태 평가

통일 교육이 반공 안보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진정한 의미의 통일 교육으로 전환되려면 교육 내용의 개편은 물론이고 그에 부응하여 교

육 방법도 변화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반공 안보 교육이 편협한 암기위주식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제 통일 교육은 사실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수업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 교육 지도시 유의 사항에 따르면 교사는 먼저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나 감정적 적대 의식의 표현을 자제하고, 이론적 모순이나 현실과의 괴리점에 근거하여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사실을 알려줌과 동시에 학생들이 스스로의 판단 능력과 자각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분석·종합·평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는 통일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의 전 과정을 이끌어가고, 제기된 문제에 대한 지적 탐구와 문제 해결 능력을 적극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력을 키울 수 있다.⁷³⁾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사의 일방적 주입식 강의 방식보다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지지·반대 또는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게 허용하는 탐구 방식⁷⁴⁾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탐구식 수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문제에 관련한 최신의 정보와 자료가 학생들에게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⁷⁵⁾

따라서 최근의 변화하는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자료가 개발되어야 한다. 국내외적인 상황의 변화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 그에 따라 진전되고 있는 남북 관계 및

73) 통일원, 「통일교육지도자료」, 1990, pp.23-24.

74) 통일 교육에서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수업 방식은 탐구식 수업 방법, 개념 수업 모형, 집단 탐구 수업 모형, 비교 분석 모형 등 다양하다. 윤건영, 앞의 책, pp.567-475. ; A. Bank, M. E. Henerson, L. Eu., A Practical to Program Planning : A Teaching Models Approach, 박성익,권락원 편역, 「수업모형의 적용기술」 (서울:성원사,1989), 참조.

75) 통일원, 「화해 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 방향」, 1992, p.65.

통일 문제를 객관적이며, 합당하게 담아낼 수 있는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⁷⁶⁾

이러한 점에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의 도덕·국민윤리 교과의 북한 및 통일 문제 관련 단원을 가르치는데 북한에 관한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하다 하겠다.

<표7> 실제 수업에서의 자료 활용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교과서 내용만 지도	48(63.2)	19(59.4)	67(62)
상급기관 배포자료 이용	19(25)	13(40.6)	32(29.6)
신문 스크랩	48(63.2)	16(50)	64(59.3)
방송 녹화	30(39.5)	11(34.4)	41(40)
통일원 자료실 이용	13(17.1)	5(15.6)	18(16.7)
1번만 해당	17(22.4)	8(25)	25(23.1)
1항 이외 1개 항목	10(13.2)	2(6.3)	12(11.1)
1항 이외 2개 항목 이상	49(64.5)	22(68.8)	71(65.7)

북한 또는 통일 문제에 관련된 단원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어떤 자료를 이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표7>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응답 비율을 보면 교과서의 내용만을 지도한다는 응답이 22.4%(17명), 교과서 내용 외에 활용하는 자료를 높은 비율 순으로 보면 신문 스크랩 63.2%(48명), 방송 녹화 39.5%(30명), 상급 기관 배포 자료 이용 25%(19명), 통일원 자료실 이용 17.1%(13명)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 내용만 지도하는 비율이 25%(8명), 교과서 이외의 활용하는 자료를 높은 비율 순으로 보면, 신문 스크랩 50%(16명), 상급기관 배포 자료 40.6%(13명), 방송 녹화

76) 한만길, “고등학교 통일교육내용과 교사들의 통일교육관 분석을 통한 통일교육 방안모색,” 통일원, 앞의 책, p537.

34.4%(11명), 통일원 자료실 이용 15.6%(5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와는 달리 교과서 내용과 상급 기관 배포 자료의 이용률이 높은 것은 입시 중심위주의 수업 진행을 위한 수업 방식에 기인한다 하겠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남북 관계의 전개 상황하에서 공식적 교과과정의 적시 개편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른 지도 지침의 제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북한 및 통일 교육이 시대적 전개에 부응되지 못한 진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교과서만을 통해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겠다.

3.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

개인은 태어나 성장함에 따라 가정 환경을 벗어나 외부의 세계로 나가면 또다른 사회화되는 집단과 만나게 된다. 그 중 가장 많은 경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 만들어진 태도나 행동 유형이 지지 받거나 때로는 새로운 정향을 형성시키기도 한다.⁷⁷⁾

학교 교육에 있어서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여 학생들의 태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교사이다. 교사는 교과 내용을 직접 가르치고, 또한 교사의 행위 양식은 태도 형성기의 학생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교사의 태도는 교사가 처한 각기 다른 사회 문화에 따라 다르며 교사의 인간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⁷⁸⁾

정치사회화 과정에서 교사들의 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러한 조건들이 학생들의 정치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교사의 민주적 지도성은 민주적 가치에 부합되는 태도와 기능을 기르고, 이와는

77) 김재영, 「정치사회화론」(서울:대왕사, 1983), pp. 136-137.

78) 김재영(공저), 앞의 책, p.244.

달리 권위적 교사는 학생들을 위계와 권력 존중에 따라 생각하도록 유발하기도 한다. 또한 교사의 연령 구성비를 볼 때 전쟁을 체험한 세대보다 전후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북한 및 통일 교육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⁷⁹⁾ 마찬가지로 교사가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북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통일의식 형성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유의하다 하겠다.

(1) 북한에 대한 이미지

<표8> 귀하는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평등	0(0.0)	0(0.0)	0(0.0)
자주적 외교	1(1.3)	2(6.3)	3(2.8)
주체 사상	14(18.4)	6(18.8)	20(18.5)
세습 체제	47(61.8)	19(59.4)	66(61.1)
호전성	5(6.5)	1(3.1)	6(5.6)
경제적 낙후	9(11.8)	4(12.5)	13(12.0)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것

79) 경기도내 교사(주임교사 포함)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40세 미만(%)	40세 이상(%)	계(%)
중학교	11,622(64.1)	6,501(35.9)	18,123(77.6)
고등학교	4,277(81.9)	932(19.1)	5,220(22.4)
합계	15,899(68.1)	7,433(31.9)	23,343(100)

(경기도 교육청, 「경기 교육 통계 연보」, 1993년판 참조)

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북한을 생각할 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비율을 보면 <표8>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세습 체제가 전체의 61.8%(47명)을 차지하였고, 주체 사상 18.4%(14명), 경제적 낙후 11.8%(9명), 자주적 외교 1.3%(1명)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세습체제 59.4%(19명)으로 수위를 찾이 하였고, 주체 사상 18.8%(6명), 경제적 낙후 12.5%(4명), 자주적 외교 6.3%(2명), 호전성 3.1%(1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사 모두 '평등'에 응답한 교사는 하나도 없다. 응답 비율을 비교해 볼 때 응답의 대부분이 북한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음을 볼 수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라 할 수 있는 세습 체제, 경제적 낙후, 호전성 등으로 응답한 비율을 합하면 전체의 7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체 사상을 제외한 평등과 자주적 외교로 응답한 비율은 2.8%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표8-1>귀하는 북한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매우 신뢰한다	0(0.0)	0(0.0)	0(0.0)
조금 신뢰한다	5(6.6)	2(6.3)	7(6.5)
그저 그렇다	16(21.1)	6(18.8)	22(20.4)
조금 불신한다	35(46.1)	13(40.6)	48(44.4)
매우 불신한다	20(26.3)	11(34.4)	31(28.7)

두번째로 북한에 대하여 얼마만큼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표8-1>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조금 신뢰한다' 6.6%(5명), '그저 그렇다' 21.1%(16명), '조금 불신한다' 46.1%(35명), '매우 불신한다' 26.3%(20명)으로 북한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조금 신뢰한다' 6.3%(2명), '그저 그렇다' 18.8%(6명), '조금 불신한다' 40.6%(13명), '매우 불신한다' 34.4%(11명)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신뢰하지 않는 응답의 비율이 높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은 73.1%를 차지하고 있으나, 신뢰한다는 응답은 '그저 그렇다'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26.9%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교사의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8-2> 귀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대등한 협력관계	31(40.8)	13(40.6)	44(40.7)
경쟁관계	4(5.3)	3(9.4)	7(6.5)
도와주어야할 상대	34(44.7)	15(46.9)	49(45.4)
적대 관계	7(9.2)	1(3.1)	8(7.4)

세번째로 북한을 우리에게 어떤 상대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응답한 비율을 보면 <표8-2>와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북한을 우리의 '대등한 협력 관계'라고 응답한 비율이 40.8%(31명), 경쟁관계 5.3%(4명), 도와주어야할 상대 44.7%(34명), 적대 관계 1.3%(7명)로 응답하여 북한을 도와주어야할 상대 내지는 대등한 협력 관계의 상대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대등

한 협력 관계'로 생각하는 비율이 40.6%(13명), 경쟁관계 9.4%(3명), 도와주어야 할 상대 46.9%(15명), 적대 관계 3.1%(1명)으로 나타나 중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을 도와주어야 할 상대 내지는 협력 관계를 가져야 할 상대자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해 보면, '도덕·국민윤리'교과 담당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북한을 도와주어야 할 상대 내지는 우리와 대등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상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인식이 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은 지난 반공 교육 속에서 인습 되어진 북한에 대한 고정된 관념과 변화되어진 세계 속에서 한국의 상승된 위치라는 현실적 인식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 속에는 민족적 동포애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의 정통성에 대한 인식

역대 남한 정권은 교과서에서 정권의 정통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의 비정통성,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남한 정권의 정통성은 민족사적 전통의 계승, 유엔의 합법적 정부 승인,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국호와 건국 이념을 계승하고 있다는 세 가지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⁸⁰⁾

80)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민윤리」, 1990년도 판, pp.254-258. 참조.

교과서의 남한의 정통성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도 있다. 그 이유로서, 1. 남한의 정통성에 관한 내용이 설득력이 부족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정통성의 근거를 유엔의 승인과 같이 외부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 국제 사회에서는 이미 두개의 한국으로 공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한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고정관념을 강조하는 것은 통일교육에 역행하는 것이다. 4. 해방 후 친일파의 정권참여에 관한 내용은 빠져있는 반면에 사회주의자들의 독립투쟁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정통성이란 현 정치 체제가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다는 신념을 낳게 하여 그 신념을 줄곧 지속케하는 그 체제의 능력을 의미한다.⁸¹⁾ 북한은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경력을 왜곡·과장·미화한다던가⁸²⁾ 심지어 최근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단군의 신화를 실존화하여 단군통을 발굴하였다고 보도⁸³⁾하고 대대적인 행사를 함으로써 자신들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도덕·국민윤리' 과목 담당 교사가 북한이 선전하고 있는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경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유의하다 하겠다.

<표9> 귀하는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매우 신뢰한다	4(5.3)	1(3.1)	5(4.6)
조금 신뢰한다	8(10.5)	5(15.6)	13(12)
그저 그렇다	1(2.6)	0(0.0)	1(0.9)
조금 불신한다	40(52.6)	16(50)	56(51.9)
매우 불신한다	22(28.9)	10(31.3)	32(29.6)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표9>와 같다. 중학

한만길, 앞의 책, pp.519-521.

81) Seymour M. Lipset, 「Political Man-The Social Bas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3), p.64. 이극찬, 「정치학」 (서울:법문사, 1982), p.506 재인용.

82) Dae-Sook Suh, 「Kim Il Sung : the Korea Leader」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서대석 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청계연구소), 한글판 서문 참조.

83) 「중앙일보」, 1994년 4월 26일자.

교 교사의 경우 '매우 신뢰한다'가 5.3%(4명), '조금 신뢰한다' 10.5%(8명), '그저 그렇다' 2.6%(1명), '조금 불신한다' 52.6%(40명), '매우 불신한다' 28.9%(22명)로 나타나 김일성의 무장항일 투쟁 경력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매우 신뢰한다'가 3.1%(1명), '조금 신뢰한다' 15.6%(5명), '조금 불신한다' 50.0%(16명), '매우 불신한다' 31.3%(10명)로 나타나 중학교 교사와 마찬가지로 김일성의 무장 투쟁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인지도

학교 통일 교육에서 교사에 대한 통일 교육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의 대상으로 학생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통일 교육을 주도해 나갈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통일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은 학교 통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할 것이다.⁸⁴⁾

따라서 통일 교육에 관한 교사 교육의 문제는 현재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합한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이 통일 교육과 관련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해야만이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교사들이 교사 연수를 통하여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지 못한다면 통일에 관한 지식이 과거의 진부한 수준에 불과하거나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특히 주로 통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교사들이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알

84) 윤건영, 앞의 책, p431.

아보는 것은 매우 유의하다 하겠다.

(1) 북한 정치에 대한 인지도

<표10> 주체 사상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5(6.6)	1(3.1)	6(5.6)
어느 정도 안다	29(38.2)	10(31.3)	39(36.1)
별로 아는 바 없다	42(55.3)	21(65.6)	63(58.3)
전혀 모른다	0(0.0)	0(0.0)	0(0.0)

북한의 정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주체 사상에 대한 질문에 응답 비율을 보면 <표10>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6.6%(5명), '어느 정도 안다' 38.2%(29명), '별로 아는 바 없다' 55.3%(42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1%(1명), '어느 정도 안다' 31.3%(10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5.6%(21명)으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1.7%, '모른다'의 비율이 58.3%로 나타나 교사들의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도가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모른다'의 비율이 높은 점은 입시위주식 암기 교육으로 인하여 주체사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루지 않음으로써 상세한 이론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로 북한의 권력 세습에 의해 정권을 계승할 김정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비율을 보면 <표10-1>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안다' 51.3%(39명), '모른다' 48.7%(37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안다' 56.2%(18명), '모른다' 43.7%(14명)로 응답하였다. 종합

<표10-1> 김정일의 당에서의 공식 지위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안 다	39(51.3)	18(56.2)	57(52.8)
모른다	37(48.7)	14(43.7)	51(47.2)

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52.8%, '모른다'의 응답이 4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10-2>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4(5.3)	0(0.0)	4(3.7)
어느 정도 안다	37(48.7)	15(46.9)	52(48.1)
별로 아는 바 없다	33(43.4)	16(50.0)	49(45.4)
전혀 모른다	2(2.6)	1(3.1)	3(2.8)

세번째로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보면 <표10-2>와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5.3%(4명), '어느 정도 안다' 48.7%(37명), '별로 아는 바 없다' 43.4%(33명), '전혀 모른다' 2.6%(2명)로 응답했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어느 정도 안다' 46.9%(1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50.0%(16명), '전혀 모른다' 3.1%(1명)로 응답했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비율이 51.8%, '모른다'의 비율이 48.2%로 나타났다.

(2) 북한 경제에 대한 인지도

북한의 경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청산리 방법'과 '대안 사업의 체계'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1>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6.6%(5명),

‘어느 정도 안다’ 59.2%(4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30.3%(23명), ‘전혀 모른다’ 3.9%(3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1.9%(7명), ‘어느 정도 안다’ 31.3%(10명), ‘별로 아는 바 없다’ 43.7%(14명), ‘전혀 모른다’ 3.1%(1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2%, ‘모른다’의 비율이 38%로 나타났다.

<표11>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5(6.6)	7(21.9)	12(11.1)
어느 정도 안다	45(59.2)	10(31.3)	55(50.9)
별로 아는바 없다	23(30.3)	14(43.7)	37(34.3)
전혀 모른다	3(3.9)	1(3.1)	4(3.7)

<표11-1> 자력갱생의 원리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16(21)	10(31.3)	26(24.1)
어느 정도 안다	46(60.5)	15(46.9)	61(56.5)
별로 아는바 없다	10(13.2)	6(18.6)	16(14.8)
전혀 모른다	4(5.3)	1(3.1)	5(4.6)

두번째로 북한 경제의 원리인 자력갱생의 원리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1-1>와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1%(16명), ‘어느 정도 안다’ 60.5%(46명), ‘별로 아는 바 없다’ 13.2%(10명), ‘전혀 모른다’ 5.3%(4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1.3%(10명), ‘어느 정도 안다’ 46.9%(1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18.6%(6명), ‘전혀 모른다’ 3.1%(1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80.6%, ‘모른다’의 응답이 19.4%로 나타

나 북한의 경제 체제원리인 자력갱생의 원리를 잘 알고 있다 하겠다.

(3)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표12> 행정 구역(시·도)의 명칭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16(21.1)	20(62.5)	36(33.3)
어느 정도 안다	40(52.6)	9(28.1)	49(45.4)
별로 아는바 없다	20(26.3)	3(9.4)	23(21.3)
전혀 모른다	0(0.0)	0(0.0)	0(0.0)

북한의 사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행정구역(시·도)의 명칭'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2>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1.1%(16명), '어느 정도 안다' 52.6%(40명), '별로 아는 바 없다' 26.3%(20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62.5%(20명), '어느 정도 안다' 28.1%(9명), '별로 아는 바 없다' 9.4%(3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8.7%, '모른다'의 비율이 21.3%로 나타났다.

<표12-1> 5호 담당제와 인민반 분조 담당제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30(39.5)	10(31.3)	40(37)
어느 정도 안다	37(48.7)	15(46.9)	52(48.2)
별로 아는바 없다	9(11.8)	7(21.8)	16(14.8)
전혀 모른다	0(0.0)	0(0.0)	0(0.0)

두번째로 북한의 주민 통제 수단인 '5호 담당제'와 '인민반 분조 담당제'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2-1>과 같다. 중학교 교

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9.5%(30명), '어느 정도 안다' 48.7%(37명), '별로 아는 바 없다' 11.8%(9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1.3%(10명), '어느 정도 안다' 46.9%(1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21.8%(7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85.2%, '모른다'의 응답이 14.8%로 나타나 북한의 주민 통계 수단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하겠다.

(4) 북한 문화에 대한 인식도

<표13> 종자론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1(1.3)	2(6.1)	3(2.8)
어느 정도 안다	5(6.6)	5(15.6)	10(9.3)
별로 아는 바 없다	45(59.2)	20(62.5)	65(60.2)
전혀 모른다	25(32.9)	5(15.6)	30(27.7)

북한의 문화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종자론'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3>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3%(1명), '어느 정도 안다' 6.6%(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59.2%(45명), '전혀 모른다' 32.9%(25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6.1%(2명), '어느 정도 안다' 15.6%(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2.5%(20명), '전혀 모른다' 15.6%(5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2.1%, '모른다'의 비율이 87.9%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북한의 문화의 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3-1>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9.7%(15명), '어느 정도 안다' 72.45%(5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7.9%(6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8.1%(9명), '어느 정도 안다' 65.6%(21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3%(2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92.6%, '모른다'의 응답이 7.4%로 나타나 북한의 문학의 원리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를 잘 알고 있다 하겠다.

<표13-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15(19.7)	9(28.1)	24(22.2)
어느 정도 안다	55(72.4)	21(65.6)	76(70.4)
별로 아는바 없다	6(7.9)	2(6.3)	8(7.4)
전혀 모른다	0(0.0)	0(0.0)	0(0.0)

(5) 북한 교육에 대한 인지도

<표14> 교육 체계(학제)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20(26.3)	7(21.9)	27(25)
어느 정도 안다	50(65.8)	22(68.8)	71(65.7)
별로 아는바 없다	5(6.6)	3(9.4)	8(7.4)
전혀 모른다	1(1.3)	0(0.0)	1(0.9)

북한의 교육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학제'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4>와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6.3%(20명), '어느 정도 안다' 65.8%(50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6%(5명), '전혀 모른다' 1.3%(1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21.9%(7명), '어느 정

도 안다' 68.8%(22명), '별로 아는 바 없다' 9.4%(3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90.7%, '모른다'의 비율이 8.3%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북한 교육의 경전이라할 수 있는 '어린이 보육 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 14

<표14-1>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4(5.2)	1(3.1)	5(4.6)
어느 정도 안다	9(11.9)	5(15.6)	14(13)
별로 아는바 없다	51(67.1)	21(65.6)	72(66.7)
전혀 모른다	12(15.8)	5(15.6)	17(15.7)

-1>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5.2%(4명), '어느 정도 안다' 11.9%(9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7.1%(51명), '전혀 모른다' 15.8%(12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1%(1명), '어느 정도 안다' 15.6%(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5.6%(21명), '전혀 모른다' 15.6%(5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17.6%, '모른다'의 응답이 82.4로 나타나 북한의 학교 교육 및 교육학의 경전이라할 '어린이 보육 교양법'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인지도

북한의 통일 정책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방안'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5>과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4.2%(26명), '어느 정도 안다' 56.6%(43명), '별로 아는 바 없다'

6.6%(5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 '잘 알고 있다' 15.6%(5명),

<표15>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26(34.2)	5(15.6)	31(28.7)
어느 정도 안다	45(56.6)	20(62.5)	65(60.2)
별로 아는바 없다	5(6.6)	7(21.9)	12(11.1)
전혀 모른다	0(0.0)	0(0.0)	0(0.0)

'어느 정도 안다' 62.5%(20명), '별로 아는 바 없다' 21.9%(7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88.9%, '모른다'의 비율이 11.1%로 나타났다.

<표15-1> 남북 기본 합의서⁸⁵⁾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계(%)
잘 알고 있다	3(3.9)	1(3.1)	4(3.7)
어느 정도 안다	35(46.1)	15(46.9)	50(46.3)
별로 아는바 없다	36(47.4)	16(50.0)	52(48.1)
전혀 모른다	2(3.6)	0(0.0)	2(1.9)

두번째로 1990년대에 들어와 남북한 관계의 이정표라 할 수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한 질문의 응답 비율을 보면 <표15-2>와 같다. 중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9%(3명), '어느 정도 안다' 46.1%(3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47.4%(36명), '전혀 모른다' 3.6%(2명)로 응답하였다.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잘 알고 있다' 3.1%(1명),

85) 정식 명칭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통일원, 「남북기본합의서」해설, 1992 참조.

'어느 정도 안다' 46.9%(15명), '별로 아는 바 없다' 50%(16명)로 응답하였다. 종합하여 보면 '안다'의 응답이 50%, '모른다'의 응답이 50%로 나타나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남북 기본합의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요약 및 제언

인간은 출생하면서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속하게 되고 점차 성장하면서 정치사회화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 지식, 가치, 태도, 감정 등을 습득하게 된다. 개인은 성장할수록 가정 환경을 벗어나면서 청소년의 시기에 가장 많은 경험을 학교로부터 얻는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정치사회화 매체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정과 학교이다. 그 중 학교와 정치사회화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과 과정과 교사이다. 교과 과정은 특정의 정치적 내용을 포함하여 정치적 태도나 행동을 가르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치사회화 과정의 조력자로서의 교사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교육을 담당하여 학생들의 태도 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학교 통일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도덕·국민윤리' 교과서의 운영 실태와 동교과의 담당 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통일 분야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방법은 1994년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등교원 연수원에서 실시된 '도덕·국민윤리과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가한 118명의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측정 도구는 질문지로서 중학교 교사와 고등학교 교사의 두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국내의 선행 연구의

문항을 이용하거나 연구자의 현장 교육 속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설문지는 동연수 참가 교사중 10명이 무응답하여 108명(91.5%)의 설문 응답지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설문지는 개인용 컴퓨터(PC)로 일괄 전산 처리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본 연구 결과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도덕·국민윤리' 교과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국민윤리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의 자격증 표시 과목과 대학의 전공 학과가 다른 교사의 비율이 42.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국민윤리 전공 기본 이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채 국민윤리를 가르치는 비전공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교과 담당 교사들의 대학원 진학 비율이 10.7%에 그쳐 교사들의 교과 전문성 제고의 노력이 별로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선 교육 현장에서 '도덕·국민윤리' 교과에 대한 교과 상치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40.7%에 이르고, 교과 상치에 참여하는 교사의 비율이 31.6%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 수급상의 원천적 문제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동교과와 학제적 연결이 되는 사회 과학 계열이 아닌 인문 과학 계열이나 예체능 분야를 전공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11.9%에 이르고 있음은 동교과의 효율성 제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2)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복한에 관한 자료의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동교과 담당 교사들의 복한 정보 추구 노력의 측면으로 '로동신문'을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이 1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들이 경험해 본 복한 자료의 비율을 보면 귀순자의 강연(58.3%), 복한 방송(34.3%), 복한 영화(28.7%) 순으로 나타났다. 귀순자의 강연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교사 연수를 통한 경험의 결과로 보여진다. 그러나 1개 항목만을 경험한 비율이 40.7%,

전혀 경험하지 못한 교사의 비율이 13.9%에 달하여 교사들이 경험하는 북한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도덕·국민윤리' 교과 수업 중 북한 또는 통일 문제 가르치는데 교사의 북한 자료 활용 실태를 보면, 신문 스크랩의 활용이 59.3%, 방송 녹화 40%, 상급 기관 배포자료 29.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과서만을 가르치는 비율이 23.1%에 달하는 것은 교과목 특성상 현재의 북한·통일 교육이 사회 현실적 적용이 없이 입시위주식 내지는 시간 매우기식의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겠다.

(3)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라 할 수 있는 세습 체계, 호전성, 경제적 낙후가 차지하는 비율이 78.7%에 달하고, 긍정적 이미지라 할 수 있는 평등, 자주적 외교의 비율이 2.8%에 불과하여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북한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73.1%를 차지하고,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이 6.5%에 불과하여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떤 상대로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도와주어야 할 상대'가 45.4%, 대등한 협력관계가 40.7%로 응답하여 동교과 담당교사들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도와주거나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해야 할 상대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김일성의 항일 투쟁 경력에 대해 매우 신뢰하지 않는 것(81.5%)으로 나타났다.

(4)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교사들의 북한에 대한 인지도 분석에 있어서, 각 항목별 주체 사상 34.4%, 김정일의 당에서의 직위 52.8%, 우리식 사회주의와 우리 민족 제일주의 51.8%,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 체계 62%, 자력갱생의 원리 80.6%, 행정 구역(시·도) 명칭 78.7%, 5호 담당제와 인민반 분조 담당제 85.2%, 종자론 12.1%, 사회주의적 사실주의 92.6%, 교육 체계(학제) 90.7%,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교육 체계 17.6%, '고려 민주 연방공화국 창설' 방안 88.9%,

그리고 남북 기본합의서의 경우 50%가 '안다'고 응답하여 대체로 북한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인 주체 사상이라든가 북한 문화 예술의 핵심적 원리인 종자론, 북한 교육학의 정전인 사회주의 교육 체계, 그리고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라 할 남북 기본 합의서에 대하여는 낮은 인지도를 나타냈다.

이상으로 '도덕·국민윤리' 교과서의 운영 실태와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이 북한에 대하여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바탕으로 통일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통일 교육에서의 주체는 교과 담당 교사이다. 교과 교육에 있어서 충분한 담당 교사의 확보는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학교 통일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의 충분한 확보를 통하여 동교과의 상치를 줄여 나가는 것이 통일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는 초석이라 할 것이다.

(2) 통일 교육에 있어서 교사에 대한 교육을 간과할 수 없다. 교사들은 학생들의 통일 교육을 주도해 나갈 주체이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도덕·국민윤리' 교과 교사들에 대한 통일 교육은 학교 통일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은 직전(職前)교육과 직후(職後)교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⁸⁶⁾. 먼저 직전 교육에 대하여, 특히 대학에서의 교과 담당 교사 양성 교육에 대하여 그 주축을 이루는 사범대학 국민윤리과⁸⁷⁾에

86) 직전교육은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에서 학사학위와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재직중 교육(직후교육)은 일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이나 기타 특별연수프로그램을 뜻한다. 문교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p.98 참조.

87) 93학년도 전국대학 신입생 요강에 의하면 13개 국립대와 3개 사립대의 '국민윤리교육과'와 6개 사립대에서 '국민윤리과'를 두고 있다.

서 실시되는 교육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 및 통일 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 국립대 사범대 1개교(공주대학교)와 사립대 사범대 2개교(동국대, 서원대)의 국민윤리(교육)과의 1993-94학년도 교육 과정을 분석해 보면 제6차 교육 과정의 통일 교육의 목표에 부응하는 교과목의 신설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이데올로기 교육이 축소되고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이 화해 시대에 맞게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시대적 변화 추세에 맞추어 '공산주의 이론 비판', '공산주의 운동사 I·II', '비교 공산주의론', '네오 맑시즘' 등의 과목을 지양하고 '사회주의 체제 변화론', '남북한 사회 비교', '남북한 통합론'과 같은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교육의 방법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 과정을 수행하는 접근법에 관한 교과 교육 과목(국민윤리 지도법, 국민윤리 교재 연구, 국민윤리 교육론 등)이 세분화되고 증설되어야 한다.

(3) 직후 교육으로서의 교사의 연수 기회의 확대이다. 현재 통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변화에 적합한 교사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사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북한에 대하여 잘 알고 흔들림없이 실상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통일 교육과 관련되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신속하게 습득해야만이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교사 연수는 교사들이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공식적이며 체계적인 과정이므로 통일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통일 교육에 관한 연수가 통일 환경의 변화에 걸맞게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아울러 교사들의 현장 연수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통일 교육은 무엇보다도 직접 관찰과 현장 체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연수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교사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도록 특별 연수와 더불어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통일 교육 담당 교사들에게 우선적으로 사회주의권 국가의 시찰을 실시하여 체험을 통

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연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의 현행 교원 연수 제도에 따르면 연수 주기가 너무 길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하면 연수 성적의 인정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연수의 효율성을 기대하기 힘든 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수의 주기를 단축하고 연수 기관을 확대하며 연수의 참여 시간을 성적화 하여야 한다. 아울러 '승진 평정점 배점'에 있어 연수 성적에 대한 평정점의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4) '도덕·국민윤리' 교과 담당 교사들이 통일 교육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교환하고 통일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협의체를 통하여 교사들이 수시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또한 통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후원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교사들의 주체적 활동에 대해 교육 관련 기관에 의한 지나친 간섭이 행하여 진다면 그것은 차라리 교사위주의 통일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현재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교육부와 협의하에 실시하고 있는 '현장 교육 연구'의 승진 평정점의 부여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행 가산점제는 교사의 자율적 연구 노력을 지위 상승을 위한 수단으로 여겨 현장 교육 연구 그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94년 9월 22일 대통령령 제14,384호 교육공무원승진규정중개정령에 의거 현장 교육 연구 평정점의 하향 조정은 바람직한 변화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총은 교사 자신의 교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정구,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1.
- 권영민, 『북한의 문학』, 서울:을유문화사, 1991.
- 김경웅, 『정치교육론』, 서울:유풍출판사, 1982.
- 김광웅, 『사회과학연구』, 서울:박영사, 1989.
- 김문환, 『북한의 예술』, 서울:을유문화사, 1991.
- 김성재(역음), 『전환기에 선 한국교육』, 서울:한울, 1992.
- 김영주의 편, 『북한언론자료집-김정일시대의 언론이론과 정책』, 서울:한울 아카데미, 1994.
- 김원태, 『대중문화의 이해』, 서울:일진사, 1991.
- 김재영, 『정치사회화론』, 서울:대왕사, 1983.
- 김재영(공저), 『정치문화와 정치사회화』, 서울:형설출판사, 1990.
- 김충남, 『정치사회화와 정치교육』, 서울:법문사, 1982.
- 김형찬, 『북한의 교육』, 서울:을유문화사, 1991.
- 민병천, 『신통일론』, 서울:고려원, 1992.
- 박성익·권락원(편역), 『수업모형의 적용기술』, 서울:성원사, 1989.
- 배기찬, 『신 북한 지리지』, 서울:도서출판 다나, 1994.
- 서대석(옮김),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청계연구소, 1988.
- 신정현, 『북한의 통일정책』, 서울:을유문화사, 1991.
- 유재천, 『북한 언론의 실상』, 서울:민족통일협의회, 1992.
- 이극찬, 『정치학』, 서울:법문사, 1982.
- 이순형, 『정치사회화 : 사회인지와 현실참여』,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94.
- 이상우, 『한국의 안보환경』, 제2집 증보판, 서울:서강대학교출판부, 1986.

- 이상우(편),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박영사, 1987.
- 이은죽, 『북한 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법문사, 1993.
- 이 중, 『교육과 사회』, 서울:배영사, 1977.
- 이태욱, 『북한의 경제』, 서울:울유문화사, 1991.
- 전인영, 『북한의 정치』, 서울:울유문화사, 1991.
- 정우현, 『교사론』, 서울:배영사, 1993.
- 최명, 『북한개론』, 서울:울유문화사, 1991.
- 최척호, 『북한예술영화』, 서울:신원문화사, 1989.
- 한국국민윤리학회편, 『정치교육』, 서울:형설출판사, 1984.

2. 논문

- 강광식, “남북대화시대의 반공교육”, 한국교육개발원, 『도덕과 교육의 과제와 전망』 연구자료 RM86-5, 1986.
- 김규택, “정부에 대한 어린이들의 태도”, 『한국정치학회보』, 1969.
- 서강식,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 발달에 미치는 사회정치화 동인의 영향:접촉·의사소통·수용도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신상조, “학교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1992. 3.
- 유종해,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곡제총』, 제4집, 1973.
- 이재봉, “한국정치교육 발달의 체계적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 이종렬, “정치사회화 연구의 문제점과 정치교육”, 『사회와 교육』, 제8집, 1984.
- 이택휘, “정치사회화의 이론과 실제”, 『한국정치와 복지국가』, 서울:삼영사, 1981.
- 정세구, “초·중학교 학생들의 정치태도의 발달·정치신뢰와 정치효능”,

『한국교육』, Vol.1, No.2, 1974.

진덕규, “정치사회화 과정에서의 상황적 제요인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 『논총』, 제8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5.

3. 기타

공주대학교, 『공주대학교 요람(1992-93)』, 공주:공주대학교출판부, 1992.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교과서 연구총서 5, 1990.

교육출판기획실 위음, 『분단시대의 한국교육』, 서울:푸른나무, 1989.

교육법전편찬회, “교원격검정운영지침”, 『교육법전』, 서울:교육주보사, 1994.

교육부, 『고등학교 국민윤리과 교육과정 해설』, 1989.

교육부, 『고등학교교육과정(I)』, 1992.

교육부, 『교육월보』 1994.10.

교육부, 『국·중·고교 교과서의 통일·안보교육내용』, 1990.

교육부,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1989.

도덕·윤리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함께하는 도덕교육』, 서울:도서출판 푸른나무, 1989.

동국대학교, 『대학요람 1994-95』, 서울:신흥인쇄주식회사, 1994.

민족통일연구원, 『1993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1993. 7.

서울대학교 국민윤리 1종도서 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민윤리』, 1994.

서원대학교, 『서원대학교 요람 1994』, 청주:뒷목출판사, 199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통일교육분과, 『'93 여름 통일 교육 연수』 자료, 1993. 7.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통일교육분과, 『참교육 실천으로 나가는 한걸음』, 제8호, 1994. 8.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천위원회 통일교육분과, 『통일교육』, 제7호, 1993. 7.
- 통일원, 『통일교육지도자료』, 1990.
- 통일원, 『통일조국의 헌법·교육·제도·통일교육 방향』, 1992.
- 통일원,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1992, 1993.
- 한국교육개발원, 『중학교 도덕』, 199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통일안보교육 지침서』, 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89.
- 한국도덕국민윤리학회, 『도덕국민윤리과교육』 제1-5집, 서울:한국도덕국민윤리학회, 1990-94.
- 한국도덕국민윤리학회, 『남북화해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민교육(통일교육)의 실천방안』, 도덕·윤리 교과지도 도움책 제1집, 서울:한국도덕국민윤리학회, 1992.